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대명
광양보건대학교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Korean language ability level,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migrant laborers on life satisfaction: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Dae-Myung Kim

Dep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Science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어능력,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희망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희망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한국어능력은 중간 정도이며, 읽기는 높은 반면에 듣기와 말하기는 낮게 나타났다. 희망의 매개 역할을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희망은 한국어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희망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희망에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족과 이웃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이주노동자, 한국어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생활만족도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he Korean language ability,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migrant laborers on hope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the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migrant laborers influences life satisfaction through hope. The Korean ability of these laborers was intermediate level where they performed well in reading while they showed low performance in speaking and listen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pe mediates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on life satisfaction and does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results that the better they hope the bigger life satisfaction gets implied that hope is the immediate cause of life satisfaction. Third, for their hope, we should provide not only language education but also opportunities for the perception that the role of family and neighbors is important. It is also necessary to facilitate active movements with the local community so that the migrant laborers take part in roles as members of society. Further we need to operat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helping the migrant laborers to adapt their lives in Korea.

Key Words : Migrant laborers, Korean language ability,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Hope, Life satisfaction

Received 26 February 2016, Revised 27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Dae-Myung Kim
(Gwangyang Health Sciences University)
Email: dmkim@gy.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말부터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일반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 정책을 실시하였다[1]. 1990년대 초반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으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에 일하면서 한국의 산업현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2]. 한편,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으로의 이주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189만명을 넘었으며, 이들 중에 약 60만명의 외국인이 취업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3].

국내로 들어온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그들의 고유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타국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4]. 다양한 출신국으로 인해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의사소통 문제와 상대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주하는 국가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기초 수준의 언어구사력과 낮은 사회적 관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5].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의 서툰 한국어능력과 낮은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을 낮추며 삶의 희망을 가지는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늘날 이주노동자 문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 동안 단일민족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는데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D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이들의 문화적응 및 사회통합의 문제에는 무관심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내노동자 보호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6].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정과 지지의 대상인 가족과 분리된 생활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외로움에 빠지기 쉽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고된 노동을 하며 외로운 생활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2004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의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불공정한 대우와 사회적 차별은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이제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하여 접근할 시점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실태, 고용관리, 인권침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8,9],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도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인간으로서의 삶의 영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적 접근에 바탕을 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및 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포괄적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

한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주노동자의 한국에서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분석한 선행연구는 김희재, 장익진, 나금실(2009)의 연구와 강남모(2008)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부산·경남지역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김희재 외(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는 ‘고용조건만족’, ‘작업장환경만족’, ‘지역환경만족’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조건만족은 ‘고용된 회사, 고용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을 말하며, 작업장환경만족은 ‘작업장환경, 안전환경, 의료혜택, 숙소시설, 회사급식,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환경만족은 ‘생활습관, 교육환경, 쇼핑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을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모국보다 비교적 발전된 한국이 지역환경에는 만족하는 반면, 자신들이 일하는 작업장 중심의 환경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모(2008)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는 ‘행복감’과 ‘자신감’이라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1점으로 측정되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자신감 요인이 행복감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가치있게 생각하며 매사에 의욕적으로 성취하려는 자신감 요인이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행복감 요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2 이주노동자의 한국어능력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이주노동자의 한국어능력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주국의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10]. 다시 말하면, 이주국 언어 능력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데, 왜냐하면 언어의 어려움은 이주노동자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의미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김보미(2007)의 서울·경기지역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Liebkind & Jasinskaja-Lahti(2000)의 연구에서도 언어능력이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Chow(2007)의 연구에서도 영어수준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3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변화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문화적응상의 어려움이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생활 만족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가 있다. 먼저 문화적응상의 어려움이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신근영(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변화는 사회적 지지의 강화를 초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다른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노동자나 가족들의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12]. 예를 들면,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국동포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최현(2008)의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의 크기는 사회적 지지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 동포들이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또한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김보미(2007)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사이의 부(-)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지가 희망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과 가족

과도 분거생활이 강제되는 현실에 순응하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다[13].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질의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의사소통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갖게 된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애정, 관심,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설명하였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기능을 지지해 주고 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지 및 모국인 단체와의 접촉빈도와 삶의 질[14], 시민 단체 지지, 공공기관 지지, 동족집단 지지, 가족 지지[15], 사회적 적응과 자국인 지지[16] 등이 각각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사회적 지지는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정을 제시할 수 있다.

Travelbee(1971)는 타인과 자신, 환경에 대한 신뢰가 희망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뢰'는 '희망'의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Cami(1988)는 부모, 타인, 그리고 신(神)으로부터 학습된 신뢰의 양식들은 희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7].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주체(내국인, 한국인, 외국인지원단체, 종교단체 등)로부터 양질의 지지를 받게 될 경우,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증진된 희망은 이주노동자들을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양질의 사회적 지지를 지원하는 주체들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자기 가치감, 신뢰감 그리고 희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18,19].

희망은 이주노동자들이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희망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현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삶에 만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보호기제(protective mechanism)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희망은 이주노동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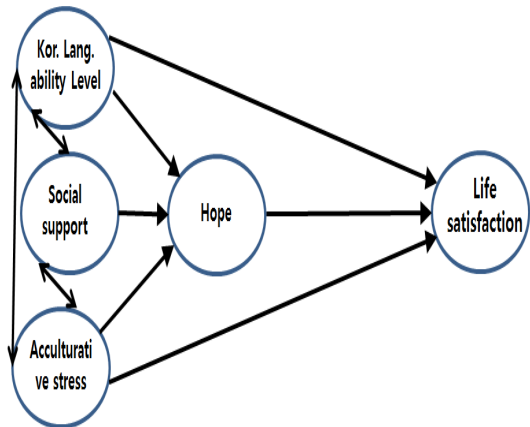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볼 수 있다.

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희망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Fig. 1]과 같이 이론적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 적응 스트레스, 희망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 적응 스트레스, 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희망을 매개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 방법

4.1 연구대상

<Table 1>과 같이, 응답자 중에서 연령별로는 20대 12.9%(290명), 30대 42.2%(95명), 40대 36.0%(81명), 50대 8.9%(20명), 학력수준은 중졸이하 4.4%(10명), 고졸

12.4%(28명), 전문대졸이상 72.9%(164명), 대학원졸이상 10.2%(23명), 체류기간은 1년~2년 30.2%(68명), 3~4년 44.0%(99명), 5년 이상 25.8%(58명), 한국에서의 노동기간은 1년~2년 28.0%(63명), 3~4년 40.0%(90명), 5년 이상 32.0%(72명), 임금수준은 50만원~100만원 미만 32.9%(74명), 100만원~150만원 미만 32.4%(73명), 150만원~200만원 미만 23.6%(53명), 200만원 이상 11.1%(25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Categories	N(%)
Age	20~29	29(12.9)
	30~39	95(42.2)
	40~49	81(36.0)
	50~59	20(8.9)
Education Level	MS graduation	10(4.4)
	HS graduation	28(12.4)
	College graduation	164(72.9)
	university graduation	23(10.2)
Stay Duration	1~2 years	68(30.2)
	3~4 years	99(44.0)
	5 years	58(25.8)
Working Period	1~2 years	63(28.0)
	3~4 years	90(40.0)
	5 years	72(32.0)
Salary	₩500,000~1,000,000	74(32.9)
	₩1,000,000~1,500,000	73(32.4)
	₩ 1,500,000~2,000,000	53(23.6)
	₩ 2,000,000~	25(11.1)

4.2 측정도구

4.2.1 한국어 능력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4문항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5점 척도 즉,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 능력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4.2.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구조적 측면은 이주노동자들이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를 파악하였고,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지지의 성격이 어떠

한 ‘내용’인지, 즉,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는 모국인, 모국인 단체, 한국인 및 직장동료, 종교단체, 외국인지원단체 등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내용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이 분류 기준은 Vicki S. Hegelson(2002)의 분류방법에 근거하여 국내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 15개 문항을 지지의 내용(물질, 정서, 정보)별로 해당 문항들을 결합하고, 사회적 지지 잠재변수를 3개의 측정변수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4.2.3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승중(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사회적 편견(8문항), 의사소통(6문항), 문화충격(11문항), 적대감(6문항), 향수병(4문항)의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승중(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4.2.4 희망

본 연구에서는 Nowotny(1989)의 ‘희망’ 척도를 최상순(1990)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내용들을 참조하여 ‘희망’의 주요 구성개념(Carson, 1989)을 토대로 10문항을 선정하였다. 척도는 목적설정(2문항), 삶에 대한 긍정(2문항), 미래에 대한 재정의(2문항), 삶의 의미(2문항), 신뢰·신앙적 평화(2문항) 등 5개 영역에서 각 2문항씩 선정하여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희망은 삶에 대한 목적 설정이 분명하고,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재정의하고, 절대자에 대한 신뢰 및 마음의 평화 등을 가진 심리적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다. 본 연구에서의 희망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4.2.5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1984)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종길(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척도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생활에서의 만족감이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측정하기 위하여 SWLS 척도의 일부 문항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4.3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과 AMOS 16.0을 사용하였으며, 각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생활 만족도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생활 만족도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계수 추정 방법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을 적용하였다.

셋째, 여러 변인들이 희망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1986)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 Z검증을 실시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및 기초통계

구조모형에서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를 크게 벗어날 경우 표준오차 등의 모수 추정치의 적합도가 정확하지 않아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관측한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서 왜도와 첨도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각 변수들의 왜도는 -.038~-0.676로 절대값 2를 넘지 않고, 첨도는 -.011~.845로 절대값 7를 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성에 문제가 없었다. AMOS로 측정한 다변량

결합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결합 통계량은 43.382, C.R.(critical ratio)값은 15.397로 모형에 첨가된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이룬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는 자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변량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자료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의 평균은 5점 척도에 2.89, 표준편차는 0.79, 문화적응 스트레스 5점 척도에 평균이 2.36, 표준편차가 0.70,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5점 척도에 2.86, 표준편차가 0.34, 희망은 5점 척도에 평균이 3.40, 표준편차가 0.61, 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척도에 3.54, 표준편차가 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읽기가 3.06으로 가장 높았고 말하기가 2.80으로 가장 낮아 읽고 듣기보다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이 2.80으로 가장 높았고 향수병이 2.6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지각된 적대감이 1.9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2.42) 지지보다는 정서적(4.10) 지지나 정보적(3.50)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에서는 목적설정(3.20), 삶에 대한 긍정(3.32), 미래에 대한 재정의(3.05), 삶의 의미(3.15), 신뢰·신앙적 평화(3.27)로 나타나 하위변인간 비슷한 값이 나타났다.

5.2 확인적 요인분석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생활 만족도의 다섯 변인에 대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적대감 요인($\lambda=.450$), 희망의 신뢰·신앙적 평화 요인($\lambda=.420$), 생활 만족도의 만족도 5요인($\lambda=.415$)이 낮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제거 후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2=430.052(p=.000, df=130)$, GFI=0.832, TLI=0.918, CFI=0.875, NFI=0.868, RMSEA=0.07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TLI, CFI 등은 0.8 ~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RMR은 0.05 이하이면 양호, RMSEA는 0.08 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indices

$\chi^2(p)$	df	GFI	TLI	CFI	NFI	RMR	RMSEA
430.052 (p=0.000)	130	.832	.918	.875	.868	.038	.079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구성요인은 한국어 능력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편견, 의사소통, 문화충격, 향수병으로, 희망은 목적 설정, 삶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재정의, 삶의 의미로, 생활 만족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좋은 요인 부하량($\lambda > 0.50$)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t값이 모두($t_{값} = \text{비표준화계수}/\text{표준오차}$) 1.965 이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3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 통계치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생활 만족도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에서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5%, 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함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낮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는 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는 희망과의 관계에서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희망과의 관계에서 낮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5.4 연구모형 검증

이주노동자의 한국어능력,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생활 만족도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 Goodness-of-fit index

Model	χ^2	df	GFI	TLI	CFI	NFI	RMR	RMSEA
	240.396	86	.852	.914	.924	.910	.032	.074

먼저 <Table 4>에서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그리고 생활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그리고 생활 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 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 값이 240.396이고 유의확률 .000으

<Table 3> After modify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or measuring results

	Path	standard burden	Error variance	S.E.	C.R.	P	Concept of confidence	AVE
Korean Language Ability	→ Speaking	.557	.254	.081	14.868	.000	.83	.632
	→ Listening	.542	.234	.075	13.283	.000		
	→ Reading	.636	.251	.073	14.561	.000		
	→ Writing	.763	.300	.083	15.956	.000		
Social Support	→ Emotional Support	.712	.224	.081	12.456	.000	.75	.628
	→ Intelligence support	.738	.267	.079	12.898	.000		
	→ Material support	.743	.297	.082	13.342	.000		
acculturative stress	→ Social prejudice	.785	.196	.052	19.354	.000	.79	.668
	→ Communication	.829	.176	.054	20.369	.000		
	→ Cultural shock	.763	.300	.062	18.618	.000		
	→ Homesickness	.581	.455	.064	13.395	.000		
Hope	→ Set purpose	.785	.196	.052	19.354	.000	.78	.647
	→ Positive about life	.829	.176	.054	20.369	.000		
	→ Re-defined about the future	.763	.300	.062	18.618	.000		
	→ The meaning of life	.581	.455	.064	13.395	.000		
Life Satisfaction	→ Satisfaction 1	.799	.250	.043	22.370	.000	.82	.619
	→ Satisfaction 2	.847	.172	.044	25.372	.000		
	→ Satisfaction 3	.926	.088	.043	24.622	.000		
	→ Satisfaction 4	.859	.089	.038	23.688	.000		

로서 유의수준 $p < .01$ 에서 연구모형이 적합하였고, χ^2 값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표본 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나타내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TLI, CFI 지수들이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RMSEA 지수가 .10 이하이면 잘 부합하고, .05 이하이면 매우 잘 부합하고, .01 이하이면 가장 잘 부합하는 지수이다.

본 연구 모형의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의 값이 .914로서 .90 이상이므로 자료에 적합하였으며, CFI의 값이 .924로서 .90 이상이므로 자료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RMSEA에서는 지수값이 .074(90%의 신뢰구간 .062-.086)로서 .10 이하이므로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모형이 χ^2 값을 포함한 TLI, CFI, RMSEA 등의 모든 적합도 지수를 살펴볼 때 연구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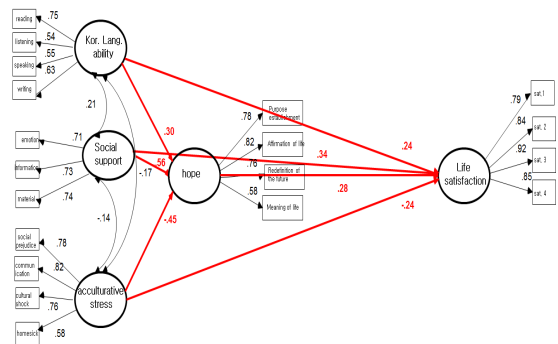
<Table 5> path coefficient

Parameter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t
Korean Language Ability → Hope	.37	.066	.30	5.65**
Korean Language Ability → Life Satisfaction	.34	.048	.30	6.81**
Social Support → Hope	2.22	.193	.56	11.39**
Social Support → Life Satisfaction	1.50	.157	.34	9.42**
acculturative stress → Hope	.43	.201	.25	2.10*
acculturative stress → Life Satisfaction	.37	.157	.33	2.58*
Hope → Life Satisfaction	.34	.201	.28	2.49*
R ² = Hope	.45			
R ² = Life Satisfaction	.68			

*p<.05, **p<.01

연구모형의 구조는 [Fig.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 모형 변인들 간의 모수치 추정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모형의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인 <Table 5>과 표준화 회귀계수로 구성된 경로 모형 [Fig. 2]를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이 생활 만족도($\beta = .30, p < .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beta = .34, p < .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생활 만족도($\beta = .33, p < .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희망은 생활 만족도($\beta = .28,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는 희망과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희망도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능력,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희망을 52% 설명해주고 있으며, 한국어능력,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희망은 생활만족도를 63% 설명해주고 있다.



[Fig. 2] The structure of research model

<Table 6> Study the effects of a standardized model analysis

Variable explanation	Response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Korean Language Ability	Hope	.34	-	.34
Social Support	Hope	.56	-	.56
acculturative stress	Hope	-.40	-	-.40
Korean Language Ability	Life Satisfaction	.34	.04	.38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56	.12	.68
acculturative stress	Life Satisfaction	-.40	.08	-.32
Hope	Life Satisfaction	.48	-	.48

연구 모형에서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그리고 생활 만족도의 직, 간접적인 효과와 전체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변인들의 전체효과를 살펴보면, 희망에 대한 전체효과는 사회적 지지(.56)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한국어 능력(.34)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전체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사회적지지(.68)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희망(.48), 한국어 능력(.38)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희망에 대한 직접효과는 사회적 지지(.5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한국어 능력(.34)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사회적 지지(.56)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희망(.48), 한국어 능력(.3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한국어 능력보다 희망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생활 만족도에 대한 간접효과는 사회적 지지(.12)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문화적응 스트레스(.08), 한국어 능력(.0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희망을 매개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68)이 한국어 능력이 희망을 매개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38)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5 매개효과 검증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희망을 매개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1986)이 제안한 매개 효과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의 Z검증 결과, 한국어 능력이 희망을 매개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매개 효과 0.19)은 $Z=5.11$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가 희망을 매개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매개 효과 0.32)은 $Z=6.34$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희망을 매개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매개 효과 0.14)은 $Z=5.87$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모두가 희망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희망과 생활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모형검증 결과는 선행연구들을 경험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선행조건으로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희망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시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그리고 생활 만족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이 연구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χ^2 값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도 지수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희망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희망을 통해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둘째,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그리고 생활 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보면, 사회적 지지는 희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희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 정도는 중간 정도로 대체로 생활 정도에 만족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를 측정한 김희재 외(2009), 강남도(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한국어 능력은 중간 정도이며, 읽기는 높은 반면에 듣기와 말하기는 낮게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한 Ying(1996), 최미영(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지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윤정주(2004), 윤영희(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셋째, 희망의 매개역할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희망은 한국어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효과는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희망,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들은 직접, 간접 및 총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영역이 높고 향수병 영역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에서 중간 정도로 나타나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복지관이나 이주민센터를 통한 출신국가별로 먼저 이주한 사람들과의 멘토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희망은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희망을 연구한 Cohen과 Hoberman(1983)의 연구에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본 대상자는 출신국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중국출신 이주노동자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가지므로 출신국가별로 다른 문화체험과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희망이 생활 만족도에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총효과 면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희망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아지며, 희망이 생활 만족도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인 이주노동자의 부모, 타인으로부터 학습된 신뢰의 양식들은 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Cami(1988),

최상순(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보미(2007), Liebkind & Jasinskaja-Lahti(2000)의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한국어능력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많은 이민 관련 연구들은 주류 문화의 언어능력이 그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언어능력은 거주기간과 함께 이민자의 자존감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서의 대인관계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를 연구하는데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법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한 이순희 외(2009)의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희망에 언어교육만이 아닌 이주노동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기회로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과 이웃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식개선과 이주노동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캠페인, 바자회 등의 활동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과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지는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생활 만족도를 연구한 김보미(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최현(200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도록 사회적 지지를 높여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지는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신성자(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신성자(201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아지고,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은 독립적 및 상호작용을 통하여 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시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희망을 갖게 함으로 이주노동자 상담 프로그램에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총효과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아지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이주성(2011)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 최현(2008)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희망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이민과 낮은 환경과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화충격, 향수병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희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회 등 외적 지원이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희망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희망을 가지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주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실천현장의 관리자나 정책당국은 이주노동자가 차별감과 적대감을 인식하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ye-Yeon Ju, "The effects of news frame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worldviews on audience's biased attitude", MA.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2.
- [2] Kye-Min Yang, "The influence of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and perceived economic Level on the attitude of immigrant employees: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Vol. 24, No. 1, pp. 111-128, 2010.
- [3]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Policy center home page, www.immigration.go.kr, 2013.
- [4] Jang-Seop Lee, "Korean culture issues and foreign workers -Theoretical Direction and challenges-", Outline of the cultural policy, Vol. 8, pp. 162-175, 1996.
- [5] Hye-seung Yang,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Korean Media Consumption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Migrants Workers in Kore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3, No. 1, pp. 55-95, 2012.
- [6]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establish guidelines f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Survey", 2011.
- [7] Mi-Hee Ban, "Stres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Master's degree,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 [8] Young-Hye Kim, "A Study on the Welfare Condition of Foreign Workers and the Way to Solve their Problems", MA.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2001.
- [9] Seung-Gil Lee,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the foreign workers, and industrial insurance processing", MA.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01.
- [10] Ying, Y. , "Immigration satisfaction of Chinese Americans: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pp. 3-16, 1996.
- [11] Bo-Mi Kim,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MA.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 [12] Hyun Choi,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f the Korean-Chinese in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Life with focus on Social Support",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2008.
- [13] Sung-Ja Shin, "The Correlates of the Marital Instability of Mongolian Migrant Worker in Korea

- Focusing on Social Isolation, Stress, Coping Patten and Social Support-", Faith & Scholarship, Vol. 17, No. 3, pp. 211-244, 2012.
- [14] Jung-Ju Yun, "A study on a factor influencing satisfaction of foreign worker's life", MA. dissert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2004.
- [15] Sun-Hwa Kim, "The Study on the influencing of Acculturation Stress among Foreign Migrant Wokers in Korea", MA.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5.
- [16] Eun-Hee Jung, "Influential factors associated with migrant workers' psychosocial adaptation: focusing on Daegu metropolitan area", MA.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6.
- [17] Sang-Sun Choi,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ness,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urban adul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90.
- [18] Mi-Jin Kim, Gyun-Young Kang,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9-47, 2015.
- [19] Eun-Yeon Lee, Kyung-Hee Shon,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with job stress in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87-95, 2015.

김 대 명(Kim, Dae Myung)



- 200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사)
- 2009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평양보건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방법, 이러닝, 평생교육
- E-Mail : dmkim@gy.ac.kr